

日本型 市場制度의 進化過程에 대한 研究

金 文 瑄*

目 次

- I. 序論
- II. 市場制度의 形成過程
- III. 近代化 過程
- IV. 戰後改革에 의한 新制度의 形成
- V. 結論

I. 序 論

오늘날 市場이라하면 自由競爭原理를 基本으로 하는 資本主義 經濟의 市場을 말한다. 그러나 資本主義라는 制度는 封建制度가 進化된 것이니 만큼, 市場制度의 進化過程을 알고자 하면 먼저 封建制度下에서의 市場의 特性은 어떠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資本主義市場으로 進化되었으며, 資本主義市場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살펴야 안된다.

封建制로서의 傳統社會에서는 「一般的으로 容認된 慣習的이며 永續性있는 패턴」¹⁾에 의한 交換, 職業, 權威者의 貢獻, 말하자면 權威者쪽에서 援助義務等이 確立되어 있었다. 이러한 制度下에서는 生存動機에 기초를 두어 호혜·재분배·自給自足에 의한 調整시스템이 中心的인 기능을 하며, 商品去來로해서 형성되어지고 있던 市場制度는 部分的인 經濟調整시스템으로서 補助的인 機能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社會에서는 政治시스템이 經濟·社會시스템을 完全히 장악하게 된다. 그러나 市民革命에 의해서 封建社會는 붕괴되고 自由市民社會가 탄

* 貿易學科 教授

1) G. 그로스만著·大野吉輝譯, 「經濟體制論」, 東洋經濟新報社, 1969, p. 22.

생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새로운 市場制度가 이루어진다.

傳統社會에서 自由市民社會로의 轉換은 市場制度가 經濟의 中心的인 調整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된다. 封建的인 獨占을 배제해서 個人主義·金錢의 效率主義를 기본으로 利働動機에 의해서 경쟁하는 賈度人과 또한 合理的인 選擇에 의존하는 買受人間에 自由競爭制度가 確立되어져, 市場價格을 信號로 하는 試行錯誤的인 自己調整시스템으로서의 市場制度가 效率的인 機能을 發揮하게 되었다. 그러나 市場制度가 이와같이 自由競爭原理에 의하여 作動하기 위해서는 社會·政治시스템이 이를 保障하지 않으면 안된다.

社會시스템에서는 移動·移轉·契約의 自由, 情報傳達·收集의 自由 등이 保障되어야 하며, 政治시스템에서는 自由放任的인 立場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自由放任的인 經濟政策은 資本主義가 發展함에 따라 여러가지 問題를 야기시켰다. 獨占體의 形成, 循環的인 恐慌의 深刻化, 勞動市場의 不均衡 및 慢性化는 財市場과 貨幣市場에 연쇄적으로 波及해서, 自由主義를 기반으로 하는 市場制度의 自己調整시스템의 安定性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問題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自己回復力이 없는 市場制度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政治시스템이 介入하게 되었다.

政治시스템의 介入方向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그 하나는 파시즘의 出現이다. 이 制度下에서는 對外的으로 軍備增強을 推進해서 帝國主義的인 自給自足體制를 形成하고 (經濟의 불력化), 對內的으로는 一部の 資本主義權력에 밀착해서 自由의 原則을 탄압하는 政治시스템이 市場制度를 統制하였다. 다른 하나는 民主主義的인 政治시스템과 自由主義的인 社會시스템을 유지하면서 行政이 介入하는 制度이다. 이 制度下에서는 對外的으로는 새로운 國際貿易體制를 國際協力方式에 의하여 만들어내고 對內的으로는 民主政府에 의한 政治를에 따라 需要維持政策 即 所得再分配의 平等化, 社會保障制度의 確立, 不況對策의 實施 등을 통해서 問題를 解決하려고 했으며 이러한 制度를 可能하게 했던것이 管理通貨制度의 成立이었으며, 이를 制度化함에 의해서 經濟시스템에 대한 政治·社會시스템의 重大한 관여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第2次世界大戰 以後의 市場制度는 基本的으로 管理通貨制度下에서 對外的으로는 國際協力關係, 對內的으로는 政治시스템의 經濟시스템에 대한 개입이 一般化되었다. 이른바 現代資本主義 段階로 轉化되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오늘날의 市場制度는 市民革命에 의하여 封建社會가 붕괴됨으로 탄생된 것인데 이 또한 資本主義가 發展됨에 따라 그 內容이 변천되어 왔다. 이것은 오늘날 資本主義國家에서의 市場制度가 변천되어온 一般的인 過程인데 그 內容을 具體的으로 살펴본다면 國民經濟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本論文의 目的은 日本市場制度가 어

떠난 내용을 갖고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II. 市場制度의 形成過程

市場制度의 形成過程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時期區分을 하느냐가 문제로 되는데 여기에는 몇가지 說이 있다. 예를들면 恐慌을 里程碑로하는 大內力說,²⁾ 經濟成長의 長期波動으로서의 趨勢加速을 가지고 區分하는 大川一司說,³⁾ 財政制度의 變化로 區分하는 江見康一說⁴⁾ 등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市場制度의 進化段階를 기준으로 하는 磯村의 區分에⁵⁾ 따르기로 한다.

그는 日本市場制度의 進化段階를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나누고 있다. 第1期는 明治初年(1868)부터 1900年前後의 金本位制度의 確立까지, 第2期는 富國強兵政策에 의하여 育成된 産業資本 및 公益事業을 中心으로 近代産業이 確立된 第一次大戰時期(1917년경)까지, 第3期는 相對적으로 自由市場制度가 成立된 時期(1918~1930), 第4期는 파시즘적인 政治시스템이 統制強化로 말미암아 市場制度가 마비된 단계로서 敗戰때까지, 第5 단계는 2次大戰後 改革에 의하여 戰後 日本型市場制度가 完成되는 過程이다. 이상과 같이 다섯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이들 각 단계의 共通的인 特徵은 첫째로 10數年前後의 짧은 간격으로 戰爭이 일어났기 때문에 政治시스템 主導로 經濟的·社會的인 變化가 이루어졌고, 둘째로는 급격한 社會的·經濟的 變化와 그에 따른 逆流現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극복해서 着實하게 경제진보를 이룩했으며, 셋째로는 經濟시스템進化만이 集中的으로 이루어져 社會·政治시스템과의 進化速度에 乖리가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日本에서 近代的 市場制度로서 市場機構가 中心的인 調整시스템으로서 역할하는 體制가 成立한 것은 明治維新에 의한 政治시스템의 變換과 그에 이은 制度의 改革에 의한 것이다.

政治的인 改革을 살펴보면 1868年의 王政復古, 1869年의 版籍奉還, 1871年의 廢藩置縣에 의하여 幕藩體制는 붕괴되고 明治維新政府가 成立되었다. 이에 이은 經濟·社會的 改革이 이루어졌던 改革方向은 이미 近代的인 市場制度를 確立하고 있었던 西歐의 모방이었던

2) 大內力, 「日本經濟論」上, 東大出版會, 1962.

大內力, 「日本經濟論」下, 東大出版會, 1963.

3) 大川·론프스키, "日本における經濟成長の百年", W.W. 록우드·大來佐武郎編, 「日本經濟近代化の百年」, 日本經濟新聞社, 1966.

4) 江見, "日本の財政構造の戰前·戰後", 「セミナー經濟學教室8」, 日本評論社, 1975.

5) 磯村隆文, 「日本型 市場經濟」, 日本評論社, 1982.

데, 基本的으로는 天皇制에 의한 中央集權體制였기 때문에 傳統的인 價値體系가 濫存하는 結果가 되었다. 改革의 內容을 보면 1868~1872년에 걸쳐 諸改革이 이루어진 결과 近代的市場體制的 기반이 定着되었다. 즉 資本과 勞動 移動의 自由, 私有財產制와 相續制, 身分的制限의 철폐에 의한 對等한 競爭條件等 制度的 條件이 確立되었다.

明治期の 經濟·社會시스템을 特徵지은 것은 1873년에 시작하여 6년이나 걸려 實施된 地租改正에 의한 영향이다. 改正 以前에는 수확고에 따라 實物納稅制였는데 改正後에는 地價의 3%(後에는 2.5%)를 現金으로 納付하게 되었다.

그런데 地租를 改正할 때 地租를 떠맡아서 새로이 地主가 된 부유계층을 포함하여 새로운 지주계급이 형성되었는데, 이 地主階級을 中心으로해서 農村에 濫存된 封建的 諸關係와 傳統主義的 價値觀이 半封建的 資本主義라고 規定지은 戰前期의 日本의 市場制度를 特徵 지었던 것이다.

당시 日本은 先進國인 歐美의 帝國主義에 의한 침략을 意識하고 있었기 때문에 産業 및 軍事技術을 發展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였으며, 方法은 先進技術을 모방하는 것이었고, 目標은 歐美水準을 쫓아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870년에 工部省을 설치하여 軍事工業部門에 중점을 두어 官營事業의 설치·經營과 技術의 改良·導入을 추진하다가 1874年 大久保利通 內務卿에 의한 殖産興業에 관한 建議書에 따라 在來産業을 基盤으로하는 製絲·紡績·農業·牧畜·貿易을 中心으로한 殖産興業政策을 추진했는데 이 政策은 西南戰役(1877)의 軍需品 需要에 의해 加速化 되었다. 이와같이 된 것은 西南戰役에 따른 인플레이션인 政府紙幣의 増發에 依한 購買力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時期의 인플레이션은 米價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物納地代를 받아서 一定 金額의 地租를 支拂하는 地主階級은 莫大한 利益을 얻게 되어 土地의 商品化가 進行되었으며, 한편 1881년의 德플레政策은 米價를 下落시켜 小地主 및 自作農의 一部가 土地를 賣却함에 의해서 土地所有의 集中이 進行되는 傾向이 定着되었다.⁶⁾

製造業部門에서는 앞서말한 인플레이션 時期에 政府財政支出의 팽창을 배경으로 官營事業이 擴大되었는데 德플레 時期에는 政府財政事情 때문에 政商에 拂下하였다.

앞서말한 土地所有의 集中과 이에따른 小作農의 増大 그리고 德플레政策에 의한 收入減少가 農村에 過剩勞動力을 形成했다. 이것이 在來型産業이나 移殖産業으로서 成長하기 始作한 都市의 工業部門이나 流通部門에 대한 勞動力 供給源이 되었다.

1882년에는 近代的 貨幣制度를 設立하기 위하여 日本銀行條例가 發布되었고 1885년에

6) 中村隆英, 「日本經濟 その成長と構造」, 東大出版會, 1977, p.68.

日本銀行이 처음으로 兌換銀行券을 發行하게 되어 通貨制度가 確立되었다. 그리고 어음교환 소·有價證券制度·商業銀行制度를 포함한 金融制度가 整備되어 資金供給루트를 形成하게 되었다.

1888~1897 년간은 鐵道·紡績·鑛山을 中心으로 한 企業化 붐이 始作되었다. 鐵道網의 擴張도 눈부신바가 있었지만, 技術과 價格面에서 外國製 綿絲에 對抗할만큼 急成長한 紡績業의 企業設立이 急增했다. 이 時期의 生産技術水準은 綿絲紡績에서는 近代의인 大工場經營이 支配的이었으나, 生絲나 織物은 機械制 生産과 在來型的 手工業的 小經營이 共存하고 있었다. 그리고 重工業部門에서는 官營의 軍需工場 以外에는 볼만한 것이 없었다.

이와같이 紡績과 鐵道에 대하여 投資가 集中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反動과 輸出의 減少로 인하여 1890년에는 紡績業을 中心으로한 過剩生産恐慌이 일어났다. 말하자면 近代化 産業인 紡績業이 國內市場의 限界에 ぶ딴하게 되었다. 明治維新 以來의 市場制度의 近代化는 結果적으로 본다면 一般農民을 희생해서 資本蓄積過程을 밟았으며 더우기 勞動者의 賃金水準도 극히 낮은 水準에서 維持되었기 때문에 國內의 購買力도 大端히 限定되어 있었고, 恐慌을 가져온 하나의 原因이 되기도 하였다.

以上과같이 國內市場의 限界에 直面한 日本의 産業資本은 朝鮮市場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것이 淸日戰爭을 일으켰고 이 戰爭에서 勝利하므로해서 朝鮮과 臺灣市場을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淸나라로부터 3억 5千萬圓의 전쟁배상금을 받았다. 1893年 日本의 一般會計 歲出 決算이 8千 4百萬圓⁷⁾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金額인가를 알 수 있다.

日本은 이 배상금으로 日銀에 대한 政府借入金을 비롯하여 臨時軍事費의 不足額을 全部 決濟했다. 뿐 아니라 이를 財源으로 하여 軍備의 擴張, 八幡製鐵所의 設立, 鐵道の 建設改良, 電信電話事業의 擴張, 治水事業의 整備, 航海事業의 장려等⁸⁾의 戰後經營이 行해졌다. 그런데 이때 특히 重要한 것은 當時 總理大臣이었던 松方이 淸國에 대한 배상금을 金塊 또는 金貨 혹은 英貨로 輸入할 것을 命하였다.⁹⁾ 이렇게 해서 輸入한 金を 가지고 金本位制度를 確立했던 것이다.

1890年의 恐慌과 이에 이은 淸日戰爭을 契機로해서 日本 市場制度의 近代化 過程이 進行되었다. 鐵道·電信電話·航海事業等 下部構造 構築이 進行되었으며, 工業部門에서는 紡績業을 中心으로한 輕工業이 成長했고 이에 따른 内外市場開拓을 위한 流通業의 成長도 加

7) 磯村隆文, 「前掲書」, p.64.

8) 吉野俊彦, 「円の歴史」, 至誠堂, 1955, p.189.

9) 吉野俊彦, 「上掲書」, p.209.

速化되었다.

이와같이 第一次産業革命的 進行과 더불어 金本位制度로서의 近代의 通貨制度가 確立되어, 歐美의 金本位國과의 換時勢가 安定되어 外國資本流入의 條件이 整備되었다. 外國貿易을 위한 이러한 條件整備로해서 對外去來는 增大했지만, 國內의 急速한 産業革命 進行이 大量的 生産財의 輸入을 초래해 貿易入超, 正貨準備減少라는 事態를 가져왔다. 이러한 狀態가 通貨의 收縮을 가져오게 함은 물론 日本銀行으로서도 正貨準備維持를 위하여 긴축정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淸日戰爭後의 景氣變動은 짧은 周期에 振幅은 큰 것이었다.

그런데 淸日戰爭後의 三國干涉에 의한 遼東半島의 반환은 政府와 國民으로 하여금 軍事力 增強의 方向을 選擇하도록 했다. 말하자면 富國強兵策으로서 軍事産業優先의 經濟發展의 길이었다. 그리고 急成長을 하고 있던 綿紡績工業은 朝鮮市場뿐 아니라 滿州市場까지도 必要로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러시아의 南進政策과 對立되는 것이었다. 때문에 軍備擴張을 軸으로한 産業育성과 環境整備에 努力을 경주했다. 官營의 軍需工場을 中心으로 民間産業도 製鐵·造船·機械·化學等 重工業에 치중한 第二次産業革命的 進行이 始作되어, 露日戰爭부터 第一次世界大戰을 經過해서 近代의 産業資本이 確立되었다.

近代의 市場制度는 第一次世界大戰의 軍需붐의 時期에 이르러 그 기반이 確立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時期까지의 發展過程의 特徵을 보면, 언제나 戰爭을 契機로해서 戰爭의 영향하에 近代化가 進行되었다. 西南戰後의 軍需붐과 그 인플레이션의 始末, 淸日戰爭을 가져오게 한 狀況과 그 結果에 의한 制度改革, 露日戰爭을 예상해서 그에 대응하는 産業育成, 그 연장선상에서의 第一次大戰붐 등이 日本 市場制度의 近代化基盤의 형성을 자극해서 그 構築을 도왔다. 따라서 이들 過程을 통해서 市場制度의 形成을 主導한 것은 政府介入이었다. 물론 西歐의 경우에도 自由主義의인 市場制度를 形成하기 위하여서는 行政介入이 必要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初期의 段階로서 封建遺制의 排除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것이 끝나면, 市場制度는 自己調整시스템으로서 自律的인 發展을 始作했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는 初期의 介入이 끝나도 앞서 말한 戰爭의 影響下에 政府主導型 市場制度 構築이 이루어졌다.

Ⅲ. 近代化過程

本論文의 市場進化의 時期區分에서 第3段階에 해당되는 1918~1930년까지의 時期는 日本市場制度에서 相對的으로 自由主義時代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相對的이라고 하는 理由는 19世紀 西歐型의 自由主義市場처럼 政治시스템으로부터 完全히 獨立되지는 못하였

다 하더라도, 政治의 直接介入體制가 完 化됨으로 해서 그때까지의 時期보다 比較的 自由스러운 經濟·社會環境이 造成되었다는 것, 그리고 國際적으로는 自由貿易·固定換率制度(金本位制下의 自由去來)·勞動移動의 自由라고 하는 自由主義市場 基盤에 混亂이 일어나, 日本도 그 影響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K. Polanyi 에 의하면 파시즘의 根源은 社會主義와 마찬가지로 아무리해도 機能을 발휘할 수 없게된 市場社會에 있었다¹⁰⁾고 했다. 日本도 1929年의 恐慌을 계기로 政治시스템의 官憲主義的 介入에 의해서 市場시스템을 否定하는 파시스트의 段階로 變질되고 있었다.

짧았던 自由化의 時期는 第一次大戰의 暴 때문에 可能했다. 歐州 交戰國의 經濟活動이 마비됨으로 해서 日本의 輸出은 急增했다. 外貨의 流入·軍需景氣·船舶을 비롯한 商品投機에서부터 株式投機 그리고 土地投機까지 일어나 日本經濟는 歷史上 最高의 好景氣를 누렸다. 重化學工業을 中心으로한 產業構造의 高度化·空前의 暴에 따른 流通業의 비약적인 성장· 새로운 消費財產業의 擡頭等 近代的 製造業의 主導下에 高度成長이 進行되었으며, 勞動市場에서도 熟練工을 中心으로 需要超過 狀態가 되어 賃金이 急上昇했다. 移植型的 近代產業部門과 一部の 在來型產業部門이 그 企業規模의 擴大와 더불어 高等教育을 받은 知識層에 經營의 一部를 맡기게 되어, 財閥家族이나 創業者에 의한 一族支配下에서, 資本과 經營의 分離라는 畵이 뜨기 시작했다. 雇用慣行에 있어서도 이때까지는 在來型產業을 中心으로 農村에서 子女의 식구수를 줄이기 위하여 艱辛賃金에 의한 低賃金·身分歸屬型的 封建的인 雇用形態가 中心이었는데, 熟練工을 確保하기 위한 手段으로 終身雇用 年功序列型的 長期雇用形態가 채택되게 되었다.

第一次大戰後의 時期는, 近代的 產業에 의한 再生産過程의 自立化, 商品 서비스 供給量의 비약적인 增加와 多樣化, 雇用機會의 增大, 資本市場·商品市場의 確立, 自由競爭의 激化, 價格變動·景氣變動의 顯在化等 近代的 資本主義로서의 市場制度의 一般的인 特徵이 日本에서도 明確히 觀察되게 되었다.¹¹⁾

이 時期 및 그후의 過程에서 日本型市場制度의 特性이라 할 수 있는 諸條件 또한 形成되었다.

經濟시스템面에서는 앞서 말한 終身雇用, 年功序列制 雇用方式과 더불어 소위 二重構造라는 것이 定着되었다. 軍事產業을 中心으로 鐵道·銀行·公益事業·綿紡業·製粉·製糖等の 部門에서는 近代的인 大企業이 育成되었지만, 消費財 供給部門에서는 주로 農業과 在來型 家内工業으로서의 中小企業이 溫存되었으며, 生産財部門에서도 單純한 部品加工業等の 中間

10) K. Polanyi 著·吉澤·野口·長尾·杉村 共譯, 「大轉換」, 東洋經濟新報社, 1969, p. 319.

11) 磯村隆文, 「前掲書」, p. 68.

業種에 많은 中小企業이 出現했다. 流通部門에서는 封建制 以來的 問屋制度가 활동범위를 넓혀 在來型的 中小生産者에 대하여 原材料를 마련해 주든가 金融面에서 지원等を 통해 그 支配力을 強化했다.

戰時분에 따른 高度成長을 배경으로 한 商品投機는 물가등귀를 가져왔고 特히 쌀값 등귀는 富의 利益을 얻지 못하는 一般大衆의 生活을 압박했다. 이러한 體驗에 의해서 一般大衆은 自由市場制度의 本質이 强者에 대해서는 利得의 自由이고, 弱者에 대해서는 生存을 위한 選擇權조차 制約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이 時期에 재벌의 산업지배가 確立되었다.

寄生地主制의 支配와 問屋制에 의한 流通支配에 놓여지게 된 農村 및 都市에서의 二重構造, 勞動市場에서 一部の 熟練工을 除外한 相對的인 過剩人口를 背景으로 한 買入者支配, 이러한 것이 自由主義期에 形成된 日本型 市場制度의 特性이었다.

이 時期의 政治시스템은, 이 當時의 民間投資가 急速히 增大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直接的인 育成策 보다는, 不況對策, 社會政策, 震災後의 救濟對策等 間接的인 支持政策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國際的인 金本位制로의 復歸에 의해서 一時的으로 安定되었던 1920年代도 1929年의 大恐慌에 의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恐慌을 克服하기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軍事力 增強을 위하여 重要産業統制法 (1931)이 施行되어 企業合同 및 카르텔이 추진되게 되었다. 이 時期以後 經濟시스템의 中心部分은 完全히 政府介入下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中日戰爭이 開始됨에 의하여 戰時統制法 (1937), 國家總動員法(1938)의 施行으로 해서 戰時統制에 들어가게 되어 市場制度는 休眠狀態에 들어가게 되었다.

二次大戰前의 日本型 市場制度의 特徵을 만든 主要한 側面은, 政治시스템·社會시스템의 後進性과 特異性이다. 明治維新은 王政復古라는 형태의 天皇制로의 體制回歸였다. 行政組織이나 社會制度의 近代化는 西歐型을 志向하면서도 政治시스템에서는 天皇制라는 絶對主義 權力을 形成했다. 明治期의 日本 近代化는 이 絶對主義 權力으로서의 天皇制를, 傳統的인 家父長制에 비교되는 政治시스템을 基盤으로 推進되었다. 國家는 同一民族에 의한 家族의 共同體이며, 天皇은 아버지이고 臣民은 아들이었다. 모든 階層의 利害對立이나 個人的 權利보다도 天皇의 뜻으로 象徵되는 國家目的이 우선되었다. 殖産興業·富國強兵策은 이와같은 國家目的의 一環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方向으로의 近代化는 政治的民主主義도 個人主義의 合理主義도 이룰수 없었다.

家父長的인 政治시스템에 의해서 傳統的 價值體系의 維持를 도모하고, 國家主義的인 成長志向에 의하여 階層間的 對立과 個人的인 權利主張을 억압해오던 日本은 1920년에 始作된

恐慌을 계기로 市場制度의 결합을 보완하기보다는 이를 否定하는 歷史的인 進路를 택하게 했다. 말하자면 軍部와 新民族主義派로서의 파시즘의 등장이었다. 이 勢力들은 市場機能의 失敗에서 빚어진 諸問題를 市場機能을 보완함으로써 問題를 解決하려 하지 않고, 對外 侵略에서 問題解決을 도모하려 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失業者에게는 職場을, 中小 自作農 및 小 作農에게는 農地를, 中小企業者에게는 市場을 保障해 준다는 美名下에 軍備의 擴張을 서둘렀고 이를 위하여 大資本勢力과 結合하여 軍需産業을 育成하였다. 그리하여 日本經濟는 獨占的인 巨大資本의 支配下에 統制經濟體制로 移行되어 自由市場經濟機構는 마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 戰前 日本의 社會시스템은 어떠했는가. 制度로서의 市場機構의 作用을 規定하는 것은 經濟主體의 思考樣式이나 行動特性이다. 西歐的인 典型으로서 市場制度의 機能을 구성한 것은, 個人主義的인 合理主義와 金錢的인 效率性を 基準으로 하는 經濟人이며, 그 延長線上에서 發展한 것이 企業이었다. 日本은 政治시스템이 後進성과 그 變化過程의 特異性外에도 傳統的인 價値가 溫存되어 社會시스템에서도 西歐型과는 다른 特性이 形成되었다. 즉 經濟的 制度로서의 財·勞動力·貨幣等의 去來市場은 西歐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經濟主體의 行動原理나 行動樣式은 充分히 西歐化되지 못했다. 말하자면 制度로서의 틀은 近代化되었었지만, 政治시스템이 家父長的인 天皇制를 維持強化했기 때문에, 傳統的인 家族主義를 核으로한 共同體 意識이 溫存되었다. 따라서 個人主義的인 合理性이 思考樣式의 基盤이 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金錢的인 效率主義도 天皇制 이데올로기 때문에 傳統主義·情緒主義를 克服하지 못했다.

前戰 日本의 市場制度의 特性을 한마디로 規定한다면, 後進的인 政治시스템 主導下에 傳統主義를 남겼으며, 經濟시스템으로서는 在來型産業을 溫存시키면서 産業構造의 傾斜的인 近代化를 推進한 體制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戰後改革에 의한 新制度의 成立

오늘날 日本은 경제대국으로서 經濟的인 번영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 戰後 高度經濟成長을 이룩한 結果인데, 이는 戰後 改革에 의해서 形成된 戰後市場體制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할 것이다.

日本이 敗戰하자 聯合軍占領政策의 最大의 目標은 日本의 非軍事化였다. 軍隊의 解體와 軍事施設 및 軍國主義的인 制度의 파괴가 進行되었다. 同時에 日本의 軍部로 하여금 帝國主

義的인 侵略을 可能케 했던 軍需産業의 解體, 특히 그것의 中心的인 存在이었던 財閥과 같은 獨占形態가 또다시 發生하지 않도록하는 體制를 만들기 위하여 1947年 4月 12日 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관한 法律이라는 獨占禁止法이 公布되었다. 뿐만아니라 이 獨禁法을 強力히 推進하기 위하여 財閥解體措置에서 除外된 巨大企業을 分割하여 再編成을 目的으로 하는 過度經濟力集中排除法이 1947年 12월 18日 公布되었다. 經濟의 非軍事化를 目的으로한 資本의 再編成과 더불어, 封建的인 小作制度下에 있었던 農業을 改革해서 小作農民을 解放하기 위한 農地改革과 勞動者의 權利를 保護하기 위한 勞動組合의 設立을 中心으로한 勞動改革이 이루어졌다.

以上과 같은 改革에 의해서 戰前의 日本經濟에 남아있던 封建的 部分이 解體되어, 近代的인 資本主義 性格이 보다 強化되는데 新市場體制의 特徵이 있다. 非軍事化에 의해서 經濟의 軍事的 性格이 弱화되어졌고, 특히 韓國動亂의 特需가 끝나서부터 産業基盤은 民需産業의 輸出을 主導하는 좋은 方向으로 나가게 되었다. 따라서 財閥解體·過度經濟力集中排除 政策에 의한 舊財閥系를 中心으로한 巨大企業의 分割은 새로운 조건에서 新興資本의 成長基盤을 만들었으며, 農地改革과 勞動改革은 그 後의 大量消費를 위한 所得分配을 可能케 했다. 그러면 위의 改革이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財閥解體에 관해서 보면, 이의 目的은 첫째로 全體主義的인 獨占力을 갖는 經濟勢力을 분쇄해서 日本의 軍國主義의 再建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財閥이 戰爭中에 얻은 莫大한 不當利得을 내놓게 함으로써, 戰爭은 누구에게도 有利한 事業이 아니라는 것을 日本人의 腦裡에 심어 놓는 것이었다.¹²⁾

占領軍은 이러한 改革이 日本側의 自發的인 意志下에 實行되기를 期待해 처음에는 이것을 助長하는 것을 方針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占領軍의 政策에 따라서 日本政府는 持株整理委員會를 設立했다. 그리하여 財閥의 解體方法으로 持株會社는 그 所有證券의 全部를 持株整理委員會에 양도할 것, 財閥의 任員은 사임할 것, 持株委는 持株會社를 解散하거나 自身이 經營할 것, 財閥關係會社의 議決權을 持株委가 行使할 것 등이었다.

財閥에 의한 企業支配는 持株와 議決權의 위양 및 財閥自體의 解體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이리하여 舊財閥에 의한 獨占的支配는 排除되었으나, 新興資本의 獨占化나 解體된 財閥會社의 企業再建整備法에 의한 新會社設立에 의해서 巨大企業이 復活할 可能性은 存在했다. 때문에 새로운 獨占的 支配의 形成을 防止하기 위하여 앞서 말한 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관한 法律과 過度經濟力集中排除法이 公布되었다.

12) 磯村隆文, 「上揭書」, p. 80.

獨占禁止法은 사-만法 以來의 美國의 反트러스트法의 原理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同法關係의 違反事件, 認可事項 등을 處理하는 기관으로서 公正去來委員會가 設置되었다.

過度經濟力集中排除法은 臨時的 特殊立法이며 獨禁法보다 나중에 制定되기는 했으나 內容上으로는 事實上 恒久法으로서 獨禁法의 前提段階에 해당한다.

當初는 集中排除의 對象으로 325社가 指定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日本政府의 強한 저항과 美占領軍側의 對日政策이 변했기 때문에 1948年 9月 소위 集中排除 4原則이 公表되어, 指定取消과 완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指定對象으로 된 것은 28社 뿐이었으며, 當初에 指定되었던 財閥銀行의 分割도 中止되었다.

이와같이 集中排除指定이 어정쩡하게 마무리되어 갔기 때문에, 그 후의 中核部分이 溫存되었으며 더욱이 獨禁法 自體가 修正緩和되어, 그 후의 獨禁法 運營이 弱化되었다.

다음에는 農地改革 및 勞動改革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戰前의 農地는 46%가 地主의 所有였다. 이들 地主의 土地를 小作農이 耕作해서 收穫의 50~60%라는 高率의 小作料를 現物로 支拂했다. 小作農에 의한 耕作規模는 대단히 零세했으며 따라서 農業從事者의 所得은 매우 낮았다.

戰後의 農地改革은 우선 地主에 의한 小作農民의 收奪을 시정하기 위하여 小作農民은 解放에 目標을 두었다. 때문에 무엇보다는 農地解放에 의한 自作農化의 路線이 有效하다고 생각되어 1946年 農地制度改革案이 成立되었는데 그 主要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自作農 創設에 必要한 農地는 農地委員會의 계획에 따라서, 政府가 強制的으로 買收해서 이것을 自作農이 될 農民에게 賣渡할 것. ②買收의 對象이 된 農地는 不在地主의 農地는 全部, 在村地主가 所有하고 있는 小作地에 대해서는 一町步를 넘는 部分, 北海道만은 四町步를 넘는 部分, 自作地도 平均 三町步를 넘는 部分이었다. ③政府에 의한 買收代金의 支拂은 農地證券의 交付로 이루어졌다. 農地를 사들인 農民은 可能한 限 農地代價의 全部 또는 一部는 一時私로 하고 殘額은 低利로서 장기상환이 인정되었다. ④將來의 事情에 따라 上환금의 減免을 保障한 것. ⑤農地委員會는 一個의 독립과정으로서 광범위한 權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構成은 小作農 5, 自作農 2, 地主 3의 비율로 했다. ⑥農地의 移動統制 小作地를 거둬들이는데 制限을 強化하고, 殘存하는 小作關係에 대해서도 小作料의 最高額을 制限하는등 小作關係의 適正化와 小作人의 地位向上에 대해서도 規定했다. 이러한 結果 農地의 約 186萬5千町步, 牧野의 約 22萬町步가 賣渡되었다.

財閥의 解體, 農地解放과 더불어 勞動組合法의 制定도 戰後改革의 기둥이었다. 占領開始後 1個月만에, 政治的·公民的 및 宗教的 自由의 制限에 관한 覺書가 日本政府에 手交되었다. 이로 인해서 이때까지 있었던 勞動統制法이 철폐되어 勞動組織에 대한 모든 障害가

除去되었다. 또한 1946년 3월 1일에는 勞動組合法이 施行되었다. 이것은 美國의 國家勞動關係法을 모형으로 한 것으로서 勞動者의 團結權과 團體交涉權을 保證하고 파업권을 인정해서 使用者가 組合活動을 理由로 勞動者의 解雇를 禁止하는등 勞動組合 活動을 法律的으로 保證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勞動運動을 保證함과 同時에 1947년 4월 勞動者 保護法으로서 勞動基準法과 勞動者 災害補償法이 公布되었다.

以上과 같은 改革은 어떠한 結果를 낳았는가. 첫째는 經營者 革命이 進行된 점이다. 재벌이 해체됨에 따라 資本家가 經營을 直接 支配하는 形態에서 比較的 獨立된 權限을 가진 經營者가 經營을 擔當하는 形態가 主流을 이루게 되었다. 둘째는 財閥에 눌러 왔던 中堅企業의 財閥이 解體됨에 따라 積極的인 競爭者로서 行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新興資本家가 活動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런데 國際情勢의 變化에 따라 美國은 對日 政策에 轉換을 가져왔으며 그와 관련하여 1949년에는 獨禁法의 第一次緩和修正이 이루어졌다.

한편 戰後의 日本經濟에 대해서 韓國動亂의 特需은 실로 神風이었다. 그것은 戰後 日本經濟가 離陸하는 데 必要한 外貨를 充分히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長期의 戰時 封鎖國으로 해서 先進國보다 훨씬 뒤떨어진 技術밖에 갖지 못하였던 日本企業이, 美國企業으로부터의 特許나 노우하우가 붙은 技術指導에 의하여 大端히 能率的인 技術導入을 할 수가 있었다. 또한 美國式 經營技術도 급속히 導入하게 되었다.¹³⁾

이리하여 戰後改革에 의한 競爭的인 成長基盤下에 많은 中堅企業이 近代的인 經營과 技術基盤을 確立할 수가 있었다.

韓國動亂에 의한 급격한 成長에 대한 反動이 1953년경부터 始作되자 그때까지 競爭的인 成長의 構造가 過當競爭이 되어 成長이 下降하고 弱한 企業은 存立이 위태롭게 되었다. 이러한 事能下에서 1953년 獨禁法 改正이 이루어졌다. 그 內容은 不況카르텔, 合理化카르텔 등을 共同行爲의 例外로 인정한다든지, 再販賣價格維持 契約을 一定한 條件下에서 認定하는 例外를 만들든지 하는 것인데, 많은 점에서 규정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거나 해석 獨禁法을 質的으로 變化시켜 버렸다. 이것은 經濟民主化를 分明히 後退시키는 改正이었다. 이것은 그 후의 大資本의 企業活動을 有利하게 하였다. 이러한 意味에서 企業의 積極的인 活動에 주도되는 高度成長에 적합한 企業活動 基盤을 整備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被害를 消費者나 弱小企業에 轉嫁하기 쉬운 것이기도 하다.

一連의 戰後 改革은 積極的인 企業活動을 하는데 有利한 構造를 造成함과 同時에 有效需要 增大를 可能케 한 國內市場의 強化를 위한 體制였다. 1930年代의 世界的인 不況對策으

13) 磯村隆文, 「上揚書」, p. 87.

로서의 케인즈 理論은 需要의 安定化를 위하여 所得分配의 平等化에 의한 消費性向 上昇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具體的인 政策으로서는 農産物에 대한 價格支持 制度의 活用, 失業保險이나 生活保護를 中心으로한 社會保障制度의 創設·累進所得課稅制度에 의한 低所得層 稅負擔의 輕減等を 主張했다. 이러한 制度的 條件下에서 財政을 補整적으로 運用해서 不況期에는 需要喚起를 好況期에는 需要抑制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케인즈의 財政政策 理論에 따르면 不況期에는 需要減少를 막을 수 있고 好況期에도 積極적으로 需要膨脹 政策을 使用해서 條件이 허락하는 한 國民所得의 成長率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所得成長에 따른 消費水準의 增大가 계속되면 高度成長은 維持될 수 있다. 農地改革과 勞動改革은 다같이 勞動力 供給源의 確保와 有效需要增大를 위한 所得分配機構 및 消費需要增大 機構의 基盤이 되었다.

農地改革은 小作農의 解放을 實現하기는 했지만 그 反面에 農業 그 自體를 頹廢시키면서도 農民의 所得을 保障해서 資本에 대해서는 勞動의 供給源으로서 그리고 消費財·投資財의 安定的인 市場으로서의 農村을 만들었다 할 수 있다.

勞動改革은 占領軍의 反共政策에로의 誘導와 日本政府의 介入에 의해서 勞動條件에 관한 經濟要求를 最大의 目標로 하는 企業內組合으로서의 運動方向을 定着시켰다. 즉 戰後改革에 의하여 育成된 勞動組合은 經濟主義를 目標로 해서 賃金引上이나 勞動條件 改善에만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組織으로 成長했다.¹⁴⁾ 그 結果 賃金引상이 이루어지지만 하면 經營과 一體化되어 高度成長을 위해 努力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成長經濟의 狀況에 대하여 有效한 要素였다.

그러나 公害問題나 物價問題 그리고 社會福祉問題라는 體制의 基盤에 關係되는 問題에는 별로 關心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들은 資本家·經營者와 더불어 不況對策을 政府에 要求하고 自社製品의 價格引上은 支持하는 忠實한 勞動組合이 高度成長을 통하여 育成되어 先進工業國의 資本家들이 부러워한 것은 이러한 의도적인 勞動組合 育成政策의 結果인 것이다.

經濟民主化로서의 戰後改革은 資本에 대해서는 自由스러운 活動을 할 수 있는 基盤을 再編成했고 勞動者나 農民이 經濟主義에 傾斜되도록 하는 狀況을 만들어 내도록 했다. 이러한 意味에서 戰後改革이 가져온 것은 社會經濟體制의 現代修正資本主義化의 推進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體制基盤의 確立은 케인즈 政策에 의한 高度成長을, 특히 日本에서 平和經濟를 實現시킨 制度的인 條件이었다.

그러나 戰後에도 改革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 그중에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流通

14) 磯村隆文, 「上掲書」, p. 90.

機構이다. 前近代의 問屋制度가 都賣業과 仲買業으로 分離되어 公正한 對抗關係下에서 價格形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1920년대 후반기에 탄생된 中央都賣市場制度였다. 이 기구는 극히 勞動集約的인 配給機構로서 效率性이나 合理性面에서 大量消費時代에 通合하지 않는 기구이다.

그런데 戰後改革의 물결을 타서 獨自的으로 發展한 總合商社라는 것이 있다. 이 總合商社는 戰後復興에 必要한 資源이나 農工業原材料 그리고 生産物을 취급하여 急成長을 實現하였다. 그러나 企業活動의 基本認識은 問屋制의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流通機構의 正점에 있는 總合商社가 商業利潤 重視의 問屋的인 行動을 強力하게 推進함으로 해서 그 全體的인 영향은 開發途上國이나 國內中小企業에 대한 重商主義的인 支配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이 強力한 商業資本系列을 기본으로 해서 既存의 問屋制度 溫存되고 있다.

戰後の 改革은 日本經濟를 現代資本主義로 再編成하는 한편 政治·社會시스템의 基礎가 되는 價值體系에는 傳統主義·情緒主義를 溫存시키는 方向을 걸었다. 戰前의 地主·中間階層에 대신해서 在來型產業으로서 量的擴大의 은혜를 입은 中小企業의 經營者나 流通業者, 그리고 農地改革과 米價支持政策에 의하여 혜택을 본 農民, 더 나아가서는 大企業 中心의 企業그룹으로서 集團意識에 싸여진 大勞組의 多數派구성원 등이 새로운 中産階級으로 되어 이 階層이 經濟主義를 基반으로 하여 傳統的인 價值體系를 再編成해서 政治·社會시스템의 安定을 維持해 왔다.

V. 結 論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日本의 市場制度는 각 단계마다 進化되어 왔다. 封建制的 規制 대신에, 個人的 移動이나 職業選擇·營業의 自由가 인정되었으며 戰後는 이것이 더욱 擴大되었다. 政治시스템도 藩閥政府에서 立憲內閣制로, 그리해서 戰後에는 民主主義的인 議會主義로 進化했다. 戰前에는 天皇制를 基盤으로한 家父長的 集團主義, 戰後에도 企業等의 集團에 대한 歸屬主義가 個人主義를 억눌러 選舉에 의한 多數黨 支配에까지 그 影響을 미치고 있다.

金錢的인 利得을 尺度로 한 市場制度의 合理主義가 貫徹되면서도 集團歸屬主義, 情緒의 安定指向, 政治權力에의 依存이라는 日本의 傳統性의 基盤을 허물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價值體系로서의 傳統主義·情緒主義가 받아들여 지는 것은 天皇制를 中心으로 하는 保守主義가 政治시스템의 支配를 계속해서 이를 維持하려고 努力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戰後の 經濟

시스템의 進化는 이 日本的 傳統主義에 의해서 獨自의인 狀況適合性을 가지게 되었다. 卽 市場制度의 發達과 더불어 自律的인 試行錯誤가 政治시스템이나 社會시스템과 混亂을 이르지 않고, 傳統主義에 기초한 集團歸屬性과 政治權力에의 依存性이, 政治·行政시스템에 의한 指導 또는 計劃的誘導에 익숙한 誘導適應型市場制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在來型產業으로서의 中小企業이나 農業을 溫存시켜 이들이 大企業으로서의 近代部門을 지탱하면서 共存하고 있는 二重構造도 日本型市場制度의 傳統性和 그에 기초해서 諸結果를 낳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